

진주지역의 ‘성읍국가’ 성에 대한 탐구*

이 전**

Searching for the Remains of Walled-Town State Sites in Jinju Region*

Lee, Jeon**

요약 : 청동기시대에 한반도에 산재하던 정치적 독립체들은 ‘군장사회(君長社會)’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성읍국가(城邑國家)’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이기백의 학설에 따르면, 청동기시대의 ‘성읍국가’ 지배자들은 나지막한 구릉 위에 토성이나 목책을 만들고 스스로 방위하면서 그 바깥 평야의 농민들을 다스렸다. 이 연구에서는 진주지역에 산재하는 21개의 성 중에서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입지하면서 그 바깥 평야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성”을 선택해서 ‘성읍국가’의 성으로 간주하고 그 성들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진주지역에서 ‘성읍국가’의 성으로 간주되는 다섯 성은 모두 산정식 산성(山頂式山城)에 속하고, 그 성내에는 우물터가 없다. 다섯 성의 평균 해발고도는 189.4m이고 평균 둘레는 250m이다. ‘성읍국가’의 성은 대체적으로는 토축성·목책성이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석축의 성벽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성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수행되어 ‘성읍국가’의 성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성읍국가, 군장사회, 청동기시대, 토축성, 목책성

Abstract : The independent groups, which were scattered all ove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bronze age, may be called ‘walled-town states’ rather than ‘chiefdoms’. Gi-Back Lee, a famous Korean historian, argued that ‘the walled-town state’ rulers kept themselves safe by staying inside a mud-walled or wood-walled castle on a hilltop and they governed the farmers living in the surrounding plains. Among the twenty-one castle sites found in Jinju region, five are believed to be ‘walled-town state’ sites. Inside the castle are found no well sites. The average altitude of the five castles is 189.4m and the average length of their circumferences is 250m. Archeological excavation research on the castle sites is expected for more scientific conclusion on the ‘walled-town states’.

Key Words : walled-town state, chiefdom, bronze age, mud-walled castle, wood-walled castle

1. 머리말

인류학자 엘만 서비스(Elman Service, 1962)는 인류의 사회적·정치적 조직을 band→tribe→chiefdom→state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1970년대 초부터 엘만 서비스가 정형화한 네 단계의 사회진화모델이 한국사학계에 소개되기 시작하였고, 엘만 서비스가 제시한 chiefdom을 ‘군장사회(君長社會)’로 번역하자는 주장이 널리 수용되었다. 다만 어떤 학자들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왕을 뜻할 수도 있는 ‘군(君)’이란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군장사회’보다는 ‘족장사회(族長社會)’란 용어가 좀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엘만 서비스의 학설에 따라 ‘구석기시대의

무리사회→신석기시대의 부족사회→청동기시대의 군장사회(족장사회)→국가(연맹국가로부터 중앙집권적 고대국가)’의 발달 단계를 수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동기시대의 ‘성읍국가’라는 개념은 무엇인가? 청동기시대의 ‘성읍국가’는 청동기시대의 ‘군장사회’와 다른 개념인가? ‘군장사회’는 인류학에서 말하는 chiefdom을 번역한 용어이고, ‘성읍국가’는 일종의 도시국가(city-state)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성읍국가’는 단지 정치적 독립체를 일컫는 용어이지만, ‘군장사회’는 하나의 정치적 독립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종족(ethnicity; 민족) 단위를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므로 청동기시대에 한반도에 산재하던 정치적 독립체들이 서로 다른 종족(민족)들이었다면 그것들을 ‘군장사회들’이라고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상대학교발전기금재단 학술연구조성비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재단법인 경상대학교발전기금재단 2008-00).

**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t. of Geography, College of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gglee@gnu.ac.kr)

칭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을 ‘성읍국가들’이라고 칭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념 규정에 따라, 청동기시대의 정치적 독립체를 ‘군장사회’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성읍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청동기시대의 한반도 정치적 독립체들이 서로 다른 종족(민족)들이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기백(2007, 29-31)은 “(청동기시대에) 정치적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토는 그리 넓지가 못했다. 나지막한 구릉 위에 토성이나 목책을 만들고 스스로 방위하면서 그 바깥 평야에서 농경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지배하였다. 한국에서 국가의 기원은 ‘성읍국가’로부터 잡아야 할 것이다.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은 일반 촌락과 구별되는 성읍 안에 살면서 촌락에 사는 농민을 지배하였고 ‘성읍국가’들이 연맹체를 형성하여 연맹왕국으로 발전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기백은 청동기시대의 한반도에는 ‘성읍국가’라는 정치적 독립체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성읍국가’의 성읍(城邑)이 자리 잡고 있는 나지막한 구릉이라고 함은 얼마나 높은 구릉을 의미하는가? 오늘날 한반도 전역에 얼마나 많은 ‘성읍국가’의 성이 남아있을까?

‘성읍국가’의 개념은 한국고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학계는 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읍국가’의 실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성읍국가’ 성이 어디에 입지하고 어떻게 분포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찾기 힘들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진주지역에 산재하는 모든 성을 찾아 성의 입지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기백이 제시한 청동기시대 ‘성읍국가’의 개념을 고찰한 다음에, 그 개념에 부합하는 진주지역의 성은 어떤 것들인가를 탐구할 것이다. 그리고 진주지역의 ‘성읍국가’ 성으로 추정되는 성들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977년 수행된 문화재관리국 조사에 따르면, 남한 각지에 분포하는 성 혹은 성지(城址)가 1,226개에 이른다.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한다면, 남한의 성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 각지에 이렇게 많은 성이 남아 있는 이유는 시대에 따라 성이 수행하는 기능이 달라졌고, 새로운 기능에 부합하는 성이 다시 축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각지에 남아있는 성에 대한 연구는 문화재 발굴과 보존이라는 점에서, 고문헌자료로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말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의의가 있다. 다양한 유형에 속하는 수십여 개의 성이 산재한다는 점에서, 진주지역은 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매우 적절한 연구지역이 될 수 있다.

성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다. 첫째는 연구대상이 되는 성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상당히 많은 인력·비용·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다수의 성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연구에는 이 방법을 동원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둘째는 문헌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각 성의 위치를 지형도에 표시하고, 성벽의 재료, 우물터의 유무, 해발고도, 성지의 지형적 특성, 주변 환경이나 조망권역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성의 기능을 추정하고 성을 유형화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방법은 아무리 현지조사를 철저히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구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진주지역 ‘성읍국가’의 성”에 대한 이 연구에서 필자는 인력·비용·시간의 한계 때문에 두 번째의 방법에만 의존할 것이고, 첫 번째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둘 것이다.

2. 많은 성이 산재하는 진주지역

1) 진주지역의 입지적 특성

오늘날 진주시는 동쪽으로는 마산시·함안군과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하동군, 남쪽으로는 사천시·고성군, 북쪽으로는 산청군·의령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영남과 호남을 연결하는 경전선철도와 남해안 고속도로가 진주시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고, 대전·진주·통영을 연결하는 대전-통영 중부 고속도로가 진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진주시와 바로 접하는 사천시에는 사천공항과 삼천포항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진주시는 경남 서부지역에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진주시는 남쪽으로 해안선과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않지만, 해안선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 진주시 중심부에 위치하는 진주성은 사천만 북쪽 끝으로부터 겨우 12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 이와 같이 진주시가 남해안에 근접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진주지역에는 남해안으로부터 침입하는 왜적을 방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성이 축조되었을 것이다. 또한 진주시는 남강 연안에 있어 영남의 각 지역으로부터 하천 수로를 통해 쉽게 접근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진주의 남강 연안에도 다수의 성이 축조되었을 것이다. 진주지역에 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여 성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진주지역에 성이 비교적 많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성의 현황과 비교해서 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진주지역에 국한된 연구이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남강은 진주시의 서쪽에서 중앙을 관통하면서 북동쪽으로 흐른다. 1970년에 남강댐이 완공되었고, 이에 따라 인공호인 진양호가 형성되었다. 덕천강이 산청군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발원하여 진주시-하동군 경계를 따라 흐르다가 진주시 진양호에서 남강의 본류로 유입되고, 나불천이 진주시 북서부의 명석면 일대에서 흘러들어 진주성 서단에서 남강의 본류로 유입되며, 영천강이 고성군 연화산도립공원에서 발원하여 진주시 금곡면을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다가 문산읍에서 남강의 본류로 유입된다. 남강 유역에는 해발고도 20m 내외의 범람원이 상당히 널리 발달하여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를 이룬다. 이러한 충적평야를 해발고도 수백 미터에 달하는 구릉성 산들이 감싸고 있다.

진주시 명석면에는 광제산(405m)·집현산(572.2m)이, 미천면에는 망용산(442m)·천황산(364m)이, 지수면에는 방어산(530.4m)이, 이반성면에는 오봉산(525m)·영봉산(395m)·보잠산(439m)이, 금곡면에는 봉대산(302.7m)이, 금산면에는 장군대산(482.2m)·월아산(471m)이 솟아있다. 금산면의 장군대산과 월아산을 제외하면, 300m보다 높은 고봉들은 모두 진주시 외곽에 분포한다. 해발고도 2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는 진주지역에 널리 분포한다.

진주지역 성의 유형과 기능은 진주지역의 입지

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진주가 남해안에 근접하여 입지한다는 사실, 남강이 진주지역을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과 남강 유역에 충적평야가 발달하였다는 사실, 대부분의 고봉들이 진주시와 인접 시·군의 경계지역에 분포한다는 사실, 또한 200m 내외의 구릉성 산지가 진주지역에 널리 분포한다는 사실은 진주지역에 축조된 다양한 유형의 성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2) 진주지역의 많은 성

이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진주지역에 산재하는 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해 진주에 산재하는 성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현지조사를 통해 성을 확인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성의 입지적 특성과 성의 둘레, 성벽의 축조양식, 성벽·성문 등의 구조, 우물터의 유무 등을 고찰하였다. 문헌자료에는 기록이 있으나 성의 입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었고, 문헌자료의 내용이 다소 잘못된 성들도 있었다. 고문헌자료에 나타난 진주지역의 주요한 성은 <표 1>과 같다.

『대동지지』는 경상도 진주에 축성산성(矗石山城), 월아산목책(月牙山木柵), 영선고현성(永善古縣城), 굴촌고현성(屈村古縣城), 척산성(尺山城), 당산성(堂山城), 신령산성(神靈山城)의 7개 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대동지지』에 기록되어 있는 7개 성 중에서 축성산성과 월아산목책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성은 현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진주의 척산성, 당산성, 신령산성의 3개 성은 왜인이 축성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 자체는 신뢰하기 어렵다.

『진양지』에는 축석성만이 「성곽조」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모든 성들은 「고적조(古跡條)」에 기록되어 있다. 『진양지』 「고적조」에는 송대산성(松臺山城), 구성(龜城), 계명성(鷄鳴城), 방어산성(防禦山城), 월아산목책(月牙山木柵), 정개산성(鼎蓋山城), 제석산성(帝釋山城) 등의 위치와 둘레, 혹은 연혁이 기록되어 있고,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두 개의 산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양지』에 기록되어 있는 구성과 계명성은 현재 그 위치를 확

표 1. 고문헌자료에 나타난 진주지역의 성

문헌	진주성 (축석성)	송대산성 (죽방산성)	방어산성	월이상목책성 (장군대산성)
세종실록지리지 (세종 14: 1432년)	기록	기록	×	×
경상도속찬지리지 (단종 2: 1454년)	기록	×	×	×
신증동국여지승람 (중종 26: 1531년)	기록	기록	×	×
진양지 (인조 10: 1632년)	기록	기록	기록	기록
여지도서 (영조 41: 1765년)	기록	기록	기록	×
증보문헌비고 (영조 46: 1770년)	기록	×	기록	기록
만기요람 (순조 8: 1808년)	기록	×	기록	×
경상도읍지 (순조 32: 1832년)	기록	×	기록	기록
대동지지 (고종 1: 1864년)	기록	기록	×	기록

인할 수 없고, 정개산성은 현재의 하동군 옥종면 중화리 정개산에 위치한다.

1977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문화유적총람』은 전국의 모든 문화유적을 집대성하고 있다. 이 『문화유적총람』에 의하면, 당시 진주시 행정구역에 ① 진주성(晋州城), ② 망진산성(望晋山城), ③ 장단산성(將壇山城), ④ 호탄동성지(虎灘洞城址)가 있고, 당시 진양군 행정구역에 ⑤ 매화산성(梅花山城), ⑥ 보령산성(寶嶺山城), ⑦ 마성리성지(馬城里城址), ⑧ 방어산성(防禦山城), ⑨ 죽방산성(竹訪山城), ⑩ 덕곡리성지(德谷里城址), ⑪ 외율리성지(外栗里城址), ⑫ 내촌리성지(內村里城址)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적총람』은 오늘날의 진주지역에 총 12개 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1989년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발행한 『한국의 성곽과 봉수』는 전국의 성곽과 봉수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 의하면, 당시 진주시 행정구역에 ① 진주성(晋州城), ② 망진산성(望晋山城), ③ 장단산성(將壇山城), ④ 호탄동성지(虎灘洞城址)가 있고, 당시 진양군 행정구역에 ⑤ 마고산성(馬古山城), ⑥ 녹도산성(錄道山城), ⑦ 덕계산성(德溪山城), ⑧~⑪ 장군대산성(將軍臺山城) 네 곳, ⑫ 하촌리산성(下村里山城), ⑬ 보령산성(寶嶺山城), ⑭ 작당산성(鵲堂山城), ⑮ 방어산성(防禦山城), ⑯ 죽장산성(竹訪山城), ⑰ 덕곡리성지(德谷里城址), ⑱ 외율리성지(外栗里城址), ⑲ 내촌리성지(內村里城址), ⑳ 제석성지(帝釋城址)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성곽과 봉수』는 진주지역에 총 20개의 성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2008년에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경남의 성곽』을 발행하였는데, 여기에는 ① 진주성, ② 송대산성, ③ 망진산성, ④ 장단산성, ⑤ 마길산성(장단산성), ⑥ 녹도산성, ⑦ 덕계산성, ⑧ 장군대산성, ⑨ 하촌리산성, ⑩ 매화산성, ⑪ 작당산성, ⑫ 마성리성지, ⑬ 덕곡리성지, ⑭ 외율리성지, ⑮ 제석산성, ⑯ 보잠산성, ⑰ 방어산성, ⑱ 내촌리성지, ⑲ 호탄동성지의 총 19개 성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19개 성은 모두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문화유적총람』에 기록된 성과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서 발행한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 발행한 성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정보와 자료에 대한 삽입은 없다.

그런데 『문화유적총람』과 『한국의 성곽과 봉수』는 전문가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편집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의 입지, 규모, 특성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 책에 수록된 성 혹은 성지를 직접 찾아내고, 그의 규모와 특성을 현지조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문화유적총람』과 『한국의 성곽과 봉수』를 참조하고 현지조사를 수행해서 진주지역에서 총 21개의 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진주지역에 산재하는 총 21개 성을 찾아 <그림 1>과 같이 지도에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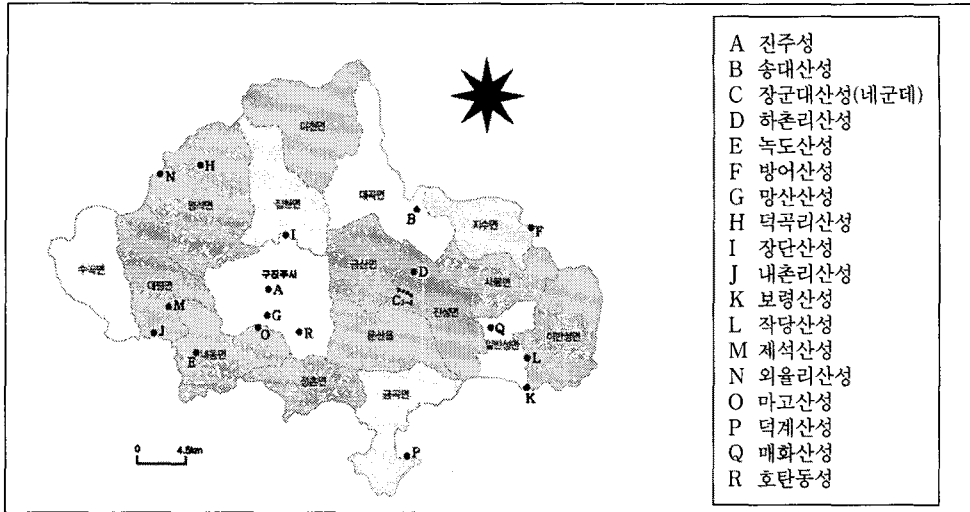


그림 1. 진주지역에 산재하는 성의 위치

3. '성읍국가'의 개념과 '성읍국가'의 성

1) 이기백에 의해 정립된 '성읍국가' 개념

'부족국가(部族國家)'는 한국사에서 고대국가의 등장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등장한 개념이었다. 국사학자들은 고대국가의 발전단계를 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로 정리하였고, '부족국가'에서 발전한 최초의 고대국가를 고구려로 보았으며, 불교의 수용과 율령의 반포를 고대국가의 중요한 지표로 보았다. 손진태(1948)는 한국고대사를 '부족국가 시대', '귀족국가 확립기', '귀족국가 융성기'로 나누었다. 그는 몇 개의 '씨족(氏族)'이 '소부족(小部族)'을 형성하였고, '소부족'들이 '부족국가'로 발전하였으며, 여러 '부족국가'들 가운데 중심세력이 '부족연맹'을 형성하고 '왕국'을 건설하였다고 보았다. 김철준(1964, 1990)은 한국의 고대사회가 씨족사회→부족국가→부족연맹→고대국가의 단계를 밟아 발달하였다고 보았다. 그런데 '부족국가'란 혈연적인 개념인 '부족(tribe)'과 비혈연적인 개념인 '국가(state)'를 결합해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부족국가'와 '부족연맹'을 계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1970년대 초 '부족국가'라는 학술적 용어의 부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천

관우는 1972년 신동아에 게재된 "남북의 고대국가"(신동아 심포지엄에서 발표)에서 '부족국가'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 대신 '성읍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주장하였다. 천관우는 "국가형 성초기에는 대개 소집단이 소지역을 차지하여 독립하며, 그 소국가의 중심 취락이 그 영역 가운데서 유일한 취락이거나 압도적인 비중을 갖는 취락이 된다."라고 전제하면서, 한국사에 기록된 성읍, 성채, 성곽 등의 용어에 주목하여 '성읍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천관우는 이러한 '성읍국가' 개념에 입각하여 삼한에 관한 그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¹⁾

이기백은 천관우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시된 '성읍국가' 용어를 받아들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곧바로 한국고대사에 적용하였다. 이기백은 1976년 출판한 『한국사신론』(개정판)에서 '성읍국가'를 한국 최초의 국가 형태로 보았으며, '성읍국가'의 정치적 지배자들은 일반 촌락과 구별되는 성읍 안에 살면서 촌락에 사는 농민을 통치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성읍국가'들이 연맹체를 형성하여 연맹왕국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이기백 2007, 29-31; 강봉원 1992, 129; 전덕재 2009, 103-104).

이기백은 그의 『한국사신론』 제2장 '성읍국가와 연맹왕국' 제1절 '청동기의 사용과 성읍국가의 성립'에서 '성읍국가'의 성립을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이기백은 청동기시대의 연대에 관해 "청동기를 처

음 사용하기 시작한 연대는 대체로 B.C. 10세기쯤으로 짐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더 올려보거나 내려잡는 견해도 있다. 이 청동기시대는 대개 B.C. 4세기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기백은 한국에 있어서 ‘성읍국가’는 B.C. 10세기부터 B.C. 4세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성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기백은 ‘성읍국가’가 청동기의 사용과 더불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천관우가 제시한 ‘성읍국가’의 개념과 다소 다른 ‘성읍국가’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천관우는 철기시대에 해당하는 삼한 혹은 삼국시대 초기의 정치적 독립체들을 ‘성읍국가’로 파악하였지만, 이기백은 B.C. 10세기부터 B.C. 4세기까지의 청동기시대에 ‘성읍국가’가 성립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이기백은 ‘성읍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당성을 들고 있다. 첫째, ‘성읍국가’ 용어가 우리나라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어 구체적인 한국의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 둘째, ‘성읍국가’ 용어는 한국고대사의 정치·경제·사회·군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충실하게 잘 반영하고 있다. 셋째, ‘성읍국가’라는 용어를 통해 세계사의 보편적인 상황(예, 오리엔트, 그리스, 혹은 중국의 도시국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한국사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서울 강동의 몽촌토성, 대구의 달성, 경주의 월성, 서울 상계동의 두 토성지, 중계동의 토성지, 강릉의 예국 토성, 고부의 은성리 토성, 경북 의성의 치선동 토성 등이 고고학적 연구에 따라 ‘성읍국가’의 도입지로서 부응한다(강봉원, 1992, 132).

2) ‘성읍국가’의 개념에 대한 논란과 ‘성읍국가’의 성

이기백이 제시한 청동기시대의 ‘성읍국가’ 개념은 아직 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개념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기백의 ‘성읍국가’ 개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가 현재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기백의 ‘성읍국가’ 개념은 체계적인 연구 절차에 의하여 확보된 구체적인 고고학적 증거가 없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 정당성과 신빙성에 많은 회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기백은 한국사에 있어서 ‘성읍국가’의 시대 혹은 존재라는 가설을 세워 놓았지만, 고고학자들

이나 다른 사학자들에 의해 이 가설의 정당성이 여태까지 증명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기백이 제시하는 ‘성읍국가’ 개념은 이 용어를 처음 주창하였던 천관우의 ‘성읍국가’ 개념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천관우는 ‘성읍국가’에서 곧바로 ‘고대국가(영역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았으나, 이기백은 ‘성읍국가’의 형성 이후에 몇 개의 ‘성읍국가’가 연맹하여 ‘연맹왕국’을 이루었고 왕권의 강화에 따라 점차 ‘성읍국가’의 지배자들이 중앙의 귀족으로 편제되면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즉 천관우는 정치체제가 부족→‘성읍국가’→영역국가로 발전한다고 보았으나, 이기백은 부족→‘성읍국가’→연맹왕국→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발전한다고 보았다(전덕재, 2009, 105; 문창로, 2009, 35).

이기백이 주창한 ‘성읍국가’ 개념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한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관심과 비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의 존재유무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성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성읍국가’ 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성읍국가’의 개념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각 지역에 산재하는 성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이러한 성 중에서 어떤 성들이 ‘성읍국가’의 성에 속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진주지역에 산재하는 성 중에서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입지하면서 그 바깥 평야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성”을 선택해서 ‘성읍국가’의 성으로 분류하고 그 성들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4. ‘성읍국가’의 성이라고 추정되는 진주지역의 성

문헌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수행하여 진주지역에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1개의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지역에 입지하는 21개의 성 중에서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입지하면서 그 바깥 평야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성”은 ‘성읍국가’의 성으로 분류하였고, 평지에 입지하거나 규모가 너무 크거나 험준한 산 속에 입지하는 성은 ‘성읍국가’의 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문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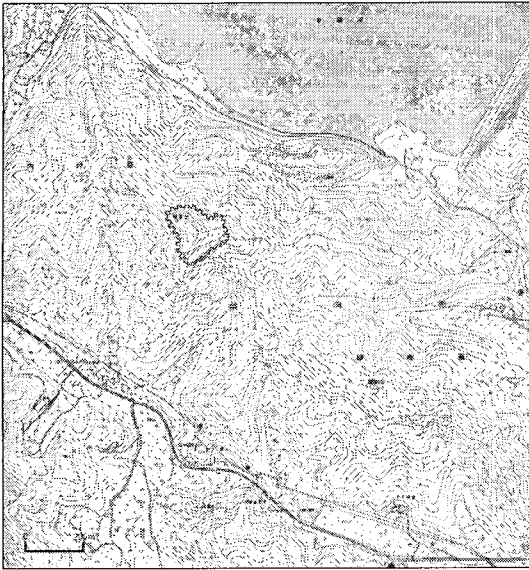


그림 2. 지형도에 나타난 녹도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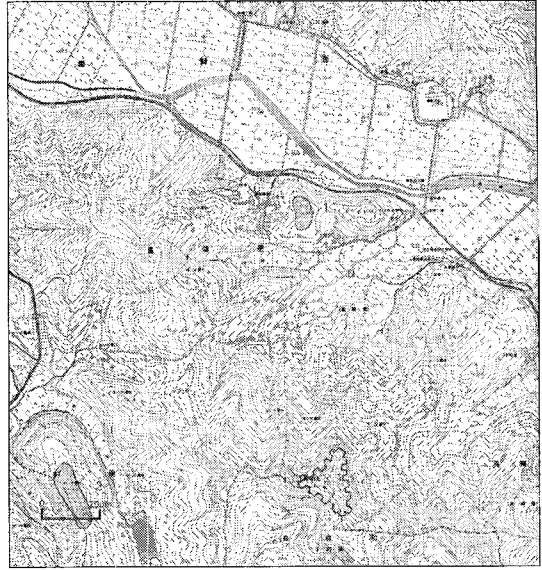


그림 4. 지형도에 나타난 장단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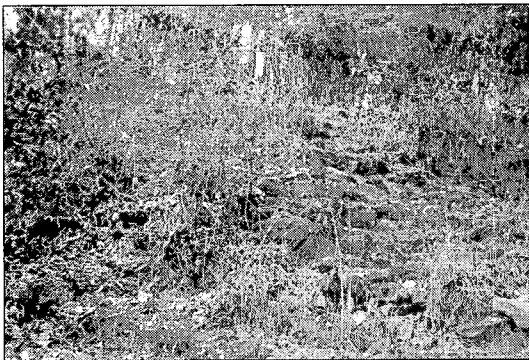


그림 3. 녹도산성의 석축으로 사용하던 돌무더기



그림 5. 장단산성 북동쪽 성벽으로 사용하던 석축의 흔적

의 기록으로 그 축조연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성도 성읍국가의 성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이 연구에서는 진주지역의 21개 성 중에서 5개의 성을 이기백이 제시한 청동기시대의 '성읍국가' 성으로 분류하였다.

1) 녹도산성(錄道山城)

녹도산성은 진주시 나동면 내평리 솔티마을에서 북동쪽으로 400~500m 떨어진 태봉산(해발고도 190.2m) 산봉우리에 소재하는 산정식 산성²⁾이다(그림 2). 『한국의 성곽과 봉수』에 의하면, 녹도산성은

내외이중성이고 외성의 둘레가 약 600m이라고 한다. 그러나 필자의 현지조사에 의하면, 녹도산성은 이중구조의 성이 아니고 성의 둘레는 약 250m에 달한다. 녹도산성은 토축성·목책성으로 추정되지만, 북쪽 급사면으로 녹도산성의 성벽으로 사용하던 돌무더기가 쌓여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석축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3). 성내에 우물터의 흔적은 없다. 녹도산성은 남강 유역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다.



그림 6. 장단산성 동문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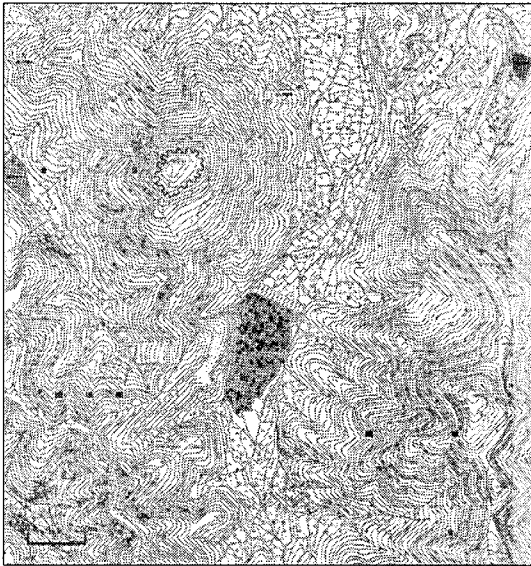


그림 7. 지형도에 나타낸 작당산성



그림 8. 작당산성의 석축으로 사용하던 돌무더기

2) 장단산성(將壇山城)

장단산성은 진주시 장재동과 집현면 봉강리를 연결하는 장대산(일명 장단산; 해발고도 197.5m)의 정상에 쌓은 산정식 산성이다(그림 4). 성벽을 따라 급사면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성의 규모를 비교적 잘 알 수 있는데, 장단산성의 둘레는 약 400m에 달한다. 남쪽 성벽과 북서쪽 성벽은 돌무더기가 없어 토축성·목책성이었다고 추정되고, 북동쪽 성벽은 돌무더기가 많이 남아있어 석축성이었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석축성이었다고 추정된다(그림 5). 장단산성 동문의 초석으로 추정되는 돌도 발견되었다(그림 6). 성내에 우물터의 흔적은 없다. 장단산성에서는 사방으로 평야가 잘 보인다. 특히 동쪽 방향으로는 남강 유역의 광대한 평야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3) 작당산성(鵲堂山城)

작당산성은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와 일반성면 답천리의 경계를 이루는 있는 작당산(해발고도 252m) 정상에 쌓은 둘레 약 250m의 산정식 산성이다(그림 7). 1977년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에서 편찬한 『문화유적총람』에는 작당산성은 임진왜란 때 진주성이 함락되자 관군이 후퇴하면서 현지의 주민들과 함께 왜적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라고 전하지만, 정밀한 고고학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임진왜란 때 쌓은 성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성벽을 따라 사방으로 돌무더기가 흩어져 있어서 작당산성은 석축성이던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8). 성내에 우물터의 흔적은 없다. 작당산성은 일반성면과 이반성면의 평야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입지한다.

4) 내촌리산성(內村里山城)

내촌리산성은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와 사천시 곤명면 금성리의 경계를 이루는 금성산(해발고도 168m)에 있는 둘레 150m의 산정식 산성이다(그림 9). 동쪽의 산능선과 연결되는 부분에는 급사면이 있어서 성벽의 흔적이 잘 남아있는 편이고, 남쪽으로는 자연석을 이용한 성벽의 흔적이 남아있다. 하지



그림 9. 지형도에 나타난 내촌리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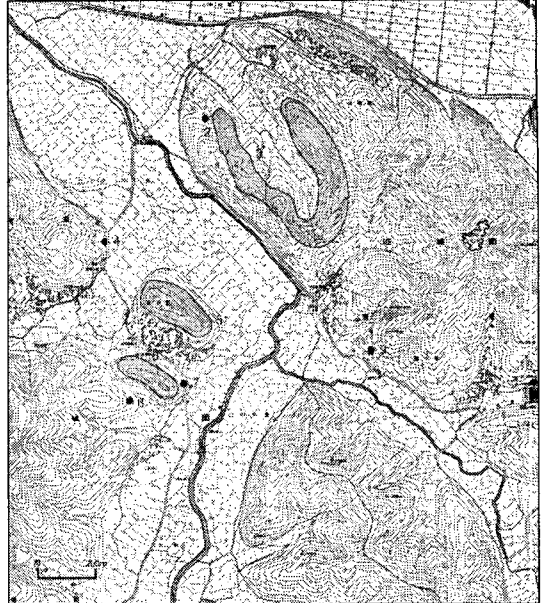


그림 11. 지형도에 나타난 매화산성의 위치



그림 10. 내촌리산성의 성벽으로 사용하던 급사면

만 대부분의 성벽은 그 흔적을 추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히 붕괴되어 있다. 내촌리산성은 성벽을 따라 돌무더기가 발견되지 않아 토축성·목책성으로 추정된다(그림 10). 성내에 우물터의 흔적은 없다. 내촌리산성에서 남쪽으로 내려다보면, 과거에는 덕천강 유역이 훤히 내려다보였을 것이지만, 오늘날에는 진양호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5) 매화산성(梅花山城)

매화산성은 진주시 일반성면 운천리에 있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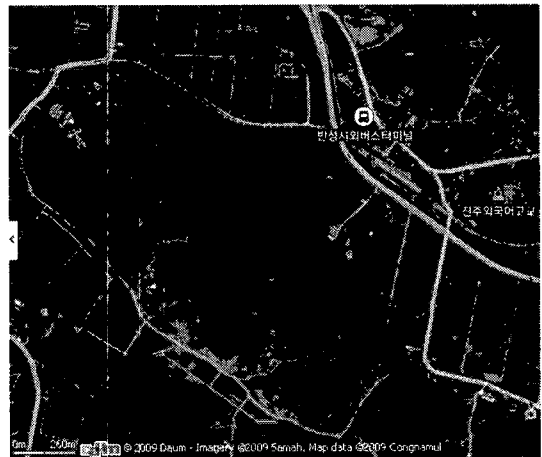


그림 12. 인공위성 사진에 표시한 매화산성의 위치

발고도 139.1m의 매화산 정상에 입지하는 산정식 산성이다(그림 11, 12). 매화산성의 성내에 묘지와 체육시설들이 들어섬으로써 성의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성문이나 치성, 옹성 등의 구조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매화산성의 성벽으로 사용되던 급사면이 비교적 잘 남아있어 성의 규모를 비교적 잘 알 수 있는데, 성의 둘레는 약 200m에 달한다. 매화산성의 성벽을 따라 부분적으로 돌무더기가 발견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매화산성은 토축성·목책

성이라고 추정된다. 성내에 우물터의 흔적은 없다. 매화산성은 사방으로 평야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입지한다.

5. 맺음말

진주지역에서 수십여 개에 달하는 모든 성 혹은 성지를 답사하여 성의 입지와 구조를 확인하는 작업은 엄청난 노력이 드는 작업이다. 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고문헌이나 근래의 문헌에 등장하는 성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근래의 문헌에 성의 이름과 위치가 나오지만 성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마성리성지)도 있고, 성의 위치만을 겨우 확인할 수 있을 뿐 성벽이나 성문이 철저히 파괴되어 그 흔적을 거의 찾을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망진산성, 마고산성, 호탄동성)도 있다. 또한 고문헌 자료에는 남아 있지만 근래의 문헌자료에는 성의 이름이 남아 있지 않을뿐더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영선고현성, 굴촌고현성, 척산성, 당산성, 신령산성, 구성, 계명성)도 있다.

필자는 현지조사를 통하여 진주지역에서 진주성, 송대산성(죽방산성), 덕계산성, 장군대산성(네 군대의 장군대산성지), 하촌리산성, 녹도산성, 계석산성, 장단산성, 마고산성, 보령산성, 작당산성, 방어산성, 망진산성(망진봉수대성), 덕곡리산성(광제산봉수대성), 외율리산성, 내촌리산성, 호탄동성, 매화산성의 21개 성 혹은 성지를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이기백이 제시한 청동기시대 '성읍국가' 성의 개념에 부합할 수 있는 성으로 ① 녹도산성, ② 장단산성, ③ 작당산성, ④ 내촌리산성, ⑤ 매화산성의 다섯 군대를 택하였다. 이 다섯 성이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입지하면서 그 바깥 평야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성"에 속한다. 이 성들은 모두 산정식 산성에 속하고, 성내에는 우물터가 없다. 성내에 우물터가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이러한 성들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심취락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이 성들의 해발고도는 139.1m인 매화산성이 가장 낮고 252m인 작당산성이 가장 높는데, 다섯 성의 평균 해발고도는 189.4m이다. 다섯 성의 둘레를 비교해보면, 내촌리산성의 둘레가 150m로서 다섯 성 가운데 가장 작고 장단산성의 둘레가 400m로서 가장 크다. 다섯

성의 평균 둘레는 250m이다. 그리고 그 성의 축조 양식을 보면, 작당산성은 성의 주위에 흩어있는 돌무더기의 양으로 보아 석축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네 성은 토축성·목책성이었고 부분적으로만 석축의 성벽 혹은 성문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 연구에서 필자는 진주지역의 21개 성을 여러 번에 걸쳐 조사한 다음에 다섯 군대의 성만을 이기백이 제시한 청동기시대의 '성읍국가' 개념에 부합하는 성이라고 보고, 그 성들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나지막한 구릉 위에 입지하면서 그 바깥 평야를 훤히 내려다볼 수 있는 성"이라고 해서 모두 청동기시대 '성읍국가'의 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삼국시대,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혹은 고려시대에도 그 성들을 쌓았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성벽과 성문뿐만 아니라 성안과 주변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가 수행되어야 비로소 '성읍국가'가 언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가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와 더불어 이러한 연구를 경남 전역 혹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대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진주지역의 사례가 경남 혹은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사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도 좀 더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앞으로 있을 좀 더 과학적인 연구들을 기대하면서 선행적으로 수행한 연구라고 하겠다.

주

- 1) 천관우, 1976a, 삼한의 국가형성(상): 삼한고 제3부, 한국학보(일지사), 2(1), 2-46.
"중국사에는 일종의 도시국가를 은(殷)·주(周)에서 찾아, '성시국가(城市國家)' 혹은 '읍제국가(邑制國家)' 등으로 부르는 것을 다 아는 바이지만, 여기서는 한국사의 그것을 '성읍국가(城邑國家)'로 부르기로 한다. 『삼국사기』에 ① 태백산 동남의 행인국을 정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고구려의) '성읍'으로 삼았다(고구려 동명기); ② 북옥저를 멸망시키고 그 땅을 (고구려의) '성읍'으로 삼았다(고구려 동명기); ③ 동옥저를 멸하고 그 대지(大地)를 취하여 (고구려의) 성읍으로 삼았다(고구려 태조기); ④ 왜인이 자주 우리 '성읍'을 범하여……(신라 유례기) 등 '성읍'이라는 고유어 용어례(用語例)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진주지역의 '성읍국가' 성에 대한 탐구

- 국사에서 이와 같이 굳이 굳이 '도시국가' 내지 '성읍국가'의 단계를 찾는 것은 그러한 방향의 파악이 한국사의 국가형성과정을 추적하는 데 유효한 방법의 하나가 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 강봉원, 1992, 성읍국가에 대한 일고찰, 선사와 고대(한국고대학회), 3, 129.
- 2) 성은 축조된 위치에 따라 평지성(平地城), 산성(山城) 등으로 구분한다. 문자 그대로 평지에 축조된 성은 평지성이고 산악에 축조된 성은 산성이다. 우리 나라 읍성은 평지에 축조하되 대개는 배후의 산등성이를 포용하여 평지와 산기슭을 함께 감싸면서 돌아가도록 축조하였다. 이렇게 축조된 성은 평지성과 산성의 절충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산성(平山城) 혹은 반산성(半山城)이라고도 부른다. 산성은 위치한 형태에 따라 산정식(山頂式), 포곡식(包谷式), 복합식(複合式) 산성으로 구분된다. 산정식 산성은 산정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성벽을 둘러 축조된 성이다. 산정을 중심으로 성벽을 두른 모습이 마치 산에 테를 두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산정식 산성은 테피식(테맥식·시루식·발권식) 산성이라고도 부른다. 포곡식 산성은 성 내부에 계곡을 내포하고 있는 산성이고, 복합식 산성은 기존의 산정식과 포곡식이 서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문헌

강봉원, 1992, 성읍국가에 대한 일고찰, 선사와 고대(한국고대학회), 3, 127-154.

강중훈, 2004, 대구지역의 성곽 유적, 사회과학논총(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 77-88.

고석규 2005, 조선 초기 서남해안 지방 읍성의 축조와 도시화 요소, 역사학연구(호남사학회; 구 전남사학회), 25, 29-68.

곽장근, 2004,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세력과 그 성장과정, 호남고고학보(호남고고학회), 20, 91-12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경남의 성곽(부산·울산포함),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김강식, 1999, 경상남도의 관방, 경상남도의 향토문화(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행, 714-717.

김석원, 1989, 한국의 성곽과 봉수,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코리아헤럴드 인쇄.

김철준, 1964, 한국고대국가발달사, 한국문화사대계 I, 서울: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김철준, 1990, 한국고대사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노병식, 2007, 청주지역 고대 성곽의 축조양식, 충북사학(충북대학교 사학회), 18, 371-406.

노병식, 2005, 청주지역 고대 성곽의 성격, 충북사학(충북대학교 사학회), 14, 29-83.

문창로, 2009, 천관우(1925-1991)의 사학과 고대사연구, 한국고대사연구(한국고대사학회), 53, 5-46.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중권), 문화재연구소 편찬, 천풍인쇄사 인쇄.

민덕식, 1997, 삼국시대 이전의 중국계 토성, 아시아문화(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3, 145-202.

민덕식, 2000, 조선시대의 목책, 충북사학(충북대학교 사학회), 11, 12, 169-232.

민덕식, 2002, 특수한 유형의 성곽, 아시아문화(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8, 123-176.

민덕식, 2005, 발굴조사 자료로 본 고구려 성곽의 축조공법: 체성(體城)의 축조공법을 중심으로, 사학지(단국사학회), 37, 45-95.

민덕식, 2008, 수원 고읍성과 화성, 충북사학(충북대학교 사학회), 20, pp.69-130.

박종익, 1994, 경남지역의 고대산성에 관한 연구, 경상사학(경상사학회), 10, 1-32.

박종익, 2000,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와 목간, 한국고대사연구(한국고대사학회), 19, 5-39.

반영환, 1978/2000, 한국의 성곽(교양국사총서 30), 교양국사총서 편찬위원회[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반영환, 1991/1997, 한국의 성곽, 대원사.

백종오, 2007, 인천연안의 고대성곽에 대하여, 문화사학(한국문화사학회), 27, 149-182.

손영식, 1987, 한국 성곽의 연구, 문화재관리국.

손진태, 1948, 조선 민족문화의 연구, 서울: 동명사.

심광주, 2005, 고구려와 백제의 성곽문화, 고구려연구(고구려연구회), 20, 269-304.

심정보, 1989, 대전의 고대산성, 백제연구(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20, 211-241.

심정보, 1996, 조선시대 호서지방 연해읍성의 기능에 대한 고찰, 호서문화연구(충북대학교 증원문화연구소), 14, 3-37.

심정보, 1999, 고구려 산성과 백제 산성과의 비교 검토, 고구려연구(고구려연구회), 8, 519-555.

심정보, 1994, 한국 읍성의 연구: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심봉근, 2002, 거제도 도성, 석당논총(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31, 71-137.

심봉근, 1995, 한국남해안안성지의 고고학적 연구,

- 학연문화사.
- 유재춘, 2007, 중부내륙지역 중세 산성의 현황과 특징, 강원문화사연구(강원 향토문화연구회), 12, 5-35.
- 유재춘, 2002, 중세 산성의 특징적 유형과 변천, 강원사학(강원대학교 사학회), 17, 131-157.
- 유재춘, 1995, 세종실록지리지 성곽기록에 대한 검토, 사학연구(한국사학회), 50, 251-276.
- 이기석, 1988, 백제 몽촌토성의 입지특성에 대한 소고, 지리교육논집(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19, 1-12.
- 이기봉·홍금수, 2007, 조선시대 읍치 입지의 다양성과 전형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3), 321-340.
- 이기백, 2007(1판 16쇄), 한국사신론, 서울: 일조각.
- 이상호, 2003, 진주성의 위곽(圍郭) 복원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02, 진주시 도시구조의 역사지리적 연구, 문화역사지리(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Vol.14, No.1, pp.51-68.
- 이전, 2000, 사천만 연안에 축성된 성의 유형과 기능에 관한 역사지리적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1), 51-68.
- 전덕재, 2009, 이기백의 사학과 한국고대사 연구, 한국고대사연구(한국고대사학회), 53, 81-124.
- 전영래, 1988, 고대산성의 발생과 변천, 백제연구(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 11, 31-61.
- 전영래, 2007, 백제의 도성과 산성, 백제연구(원광대학교 마한백제연구소), 17, 221-243.
- 조효식, 2006, 낙동강 중유역 삼국시대 성곽의 분류와 특징, 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67, 71-92.
- 조효식, 2007, 대구지역 삼국시대 성곽 연구: 낙동강변 성곽을 중심으로, 대구사학(대구사학회), 89, 1-31.
- 차용걸, 1999, 남한 내 고구려 산성의 현황과 특성, 고구려연구(고구려연구회), 8, 157-173.
- 차용걸, 2002, 한국의 성곽, 눈빛.
- 차용걸, 2004, 한성시기 백제산성의 제문제, 호서고고학(호서고고학회), 10, 5-20.
- 천관우, 1975, 삼한의 성립과정: 삼한고 제1부, 사학연구(한국사학회), 26, 1-66.
- 천관우, 1976a, 삼한의 국가형성(상): 삼한고 제3부, 한국학보(일지사), 2(1), 2-46.
- 천관우, 1976b, 삼한의 국가형성(하): 삼한고 제3부, 한국학보(일지사), 2(2), 112-156.
- 최종석, 2007, 조선초기 '읍성' 용어 출현의 배경과 읍성의 유형, 동방학지(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138, 1-37.
- 최종석, 2005, 고려시기 치소성(治所城)의 분포와 공간적 특징, 역사교육(역사교육연구회), 95, 177-216.
-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한국의 성곽과 봉수,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접수: 2009.8.7, 수정: 2009.9.10, 채택: 2009.10.15)